

국별 리포트

#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4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11 |
| IV. 국제신인도    | 13 |
| V. 종합의견      | 15 |

# 루마니아

## (Romania)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238.4천 km <sup>2</sup> | G D P     | 2,000억 달러(2008년) |
| 인구   | 21.50백만 명(2008년)       | 1 인 당 GDP | 9,302 달러(2008년)  |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 통화단위      | Lei              |
| 대외정책 |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환율(달러당)   | 2.52(2008년 평균)   |

- 루마니아는 2007년기준 1인당 GNI가 6,150달러\*로 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UMIC)에 속하며, 인구규모로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터키, 폴란드에 이어 3위 국가임.
- EBRD 체제전환 지표(민영화, 가격자유화, 무역시스템, 금융자유화 등) 기준에 의거, OECD에서는 2008년부터 시장경제 체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 성공을 통해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난 3월 IMF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에 합의하였음.
- 2012년 ERM-II 도입 및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EU로부터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노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Atlas Method(3년 평균환율 사용) 기준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sup>e</sup> |
|------------|------|------|------|------|-------------------|
| 경제성장률      | 8.5  | 4.2  | 7.9  | 6.0  | 7.1               |
| 재정수지 / GDP | -1.0 | -0.8 | -1.5 | -3.2 | -4.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1.9 | 9.0  | 6.6  | 4.8  | 7.8               |

자료: IMF, EIU.

□ 경기침체 심화로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 루마니아는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수요 증대 및 건설수요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으로 2006년까지 7.9%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07년도에는 가뭄에 따른 농업생산량의 감소, 산업생산증가의 둔화로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전년도 가뭄의 해갈에 따른 농업생산량의 증가, 가계소비 및 고정투자의 증가로 1~3분기 경제성장률이 8.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주요 공산품(자동차, 금속제품)의 생산 감소 및 대량해고가 잇따르면서 연중 경제성장률은 7.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08년 1~3분기 경제성장률 8.8% → '08 4분기 경제성장률 2.9%

\* 산업생산증가율 : -20%('08.12월) → -12.1%('09.1월)

- 2009년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악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동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신뢰 하락 및 임금 수준 상승으로 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해외차입의 어려움 가중으로 국내신용시장의 추가적인 확장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 둔화도 예상됨.

\* 유로지역 '09년 평균경제성장률 전망 : -3.4%

□ 원자재가격 등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예상

- 2005년중 10%대에 달하던 루마니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자본주의경제의 정착 및 세계경제의 안정세로 2007년중 4.8%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음.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전화·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임금의 인상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7.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2009년말 물가상승률 목표: 3.5%±1.0%

- 2009년도에는 농작물의 양호한 작황, 원유가격의 하락 및 세계경기침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흥개발국가로서 여타 EU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5.3%('09) → 4.4%('10)

□ 임금인상 및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관리 어려움 예상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2007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3.2%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총선관련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2008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4%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EU 및 IMF의 긴축재정정책 운영 권고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09년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 및 세입 감소,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교육근로자 50% 인상합의) 등으로 재정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 정책

### □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표출

-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트 3개국의 경우 자국 통화가 유로화에 페그되어 있어 자율적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가 어려운 대신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 가중이 덜한 편임. 반면, 루마니아는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2008년 9월말 이후 Leu貨의 통화가치가 36%이상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Leu貨(유로화 대비) : 3.41('06) → 3.53('07) → 3.92('08)

\* Leu貨(달러화 대비) : 2.58('06) → 2.42('07) → 2.90('08)

### □ 취약한 제조업 기반, 국내외 수요감소로 침체 심화

- 1990년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경제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간데 반해 루마니아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및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 구조조정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됨.

\* 산업별 GDP 구성(2007): 서비스업 55.9%, 제조업 26.4%, 건설업 10.3%, 농림업 10.0%

\* IMF는 루마니아의 경제구조 개혁이 정책 실패로 인해 여타 신규 EU 가입국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EU내 실질적인 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특히, 루마니아 경제의 제조업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내소비 감소로 국내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외 수요감소로 인해 프랑스 르노사도 다시아(Dacia) 소재 자동차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였음.

\* 2008년 4분기 자동차 전년 동기대비 국내매출 44.7% 감소, 수출 20.9% 감

소, 생산 37.4% 감소

- 또한 섬유산업도 세계경기침체 및 여타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심화로 2006-08년간 의복 및 신발류 생산이 약 40% 감소하는 등 당분간 루마니아 제조업 부문의 경기침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 에너지 자급률 소폭 상승 예상

- 천연가스·원유·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 순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의 약 3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6년 12월 에너지 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기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 신규 원전 건설 추진으로 원전의 에너지 공급비중이 2012년 25%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 민영화 부진과 함께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4년 이후 각종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FDI 유입액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의 91%를 보전 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 민영화 사업건수 감소와 함께 FDI 유입액도 경상수지 적자액의 42% 규모로 감소하였음.

- \* 연중 FDI 유입: 65억 달러('04) → 65억 달러('05) → 114억 달러('06) → 94억 달러('07)

- 한편, 2008년중 FDI 유입액은 90억 유로로 동 기간 경상수지 적자액의 54%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 경상수지 악화 및 확대 재정정책 지속으로 안정적 경제운영 어려움

- 경상수지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 및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정책 대응에 실패한 결과

경제규모 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었음.

□ 지난 3월중 IMF 등과 200억 유로 구제금융 합의

- 루마니아는 지난 3월말 IMF 등과 200억유로 구제금융지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 IMF가 130억 유로, EU가 50억 유로, 세계은행이 10억~15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50억 유로 규모의 1차 지원분이 집행될 것으로 보임. 이에따라 루마니아는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에 이어 2008년 10월 이후 다섯 번째로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동유럽 국가가 되었음.
- IMF로부터의 재정지출 축소요구 등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제금융 지원은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필요한 루마니아의 금융자금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예산안 통과: GDP대비 재정수지적자 2% 수준 유지

- 루마니아 의회는 2009년 2월 찬성 245표, 반대 63표로 2009년 루마니아 예산안을 승인하였음.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2% 수준 유지, 소비세 인상, 교육, 보건 및 인프라 건설부문에 예산의 20% 지출결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예산안은 '09년 경제성장률 2.5%,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5%,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10.3%를 가정으로 작성되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목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미 '09년 1월중 재정수입이 8.7% 감소함에 따라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IMF, EU 등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NLP(National Liberal Party)의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주요 정당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보임.
- 한편, 루마니아의 최근 경제성장이 건설부문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감안시 건설부문에 대한 예산지출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09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재정수지/GDP -2% 수준 유지
- 예산의 20%를 인프라건설, 교육, 보건 등에 투자
- 4월 1일 부터 담배소비세 인상(1,000개당 7유로 인상)
- 법인세, 부가세 등은 현상태 유지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소폭 인하

- 2007년 10월 긴축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이후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IMF는 민간부문 외화 차입 증가로 인한 신용팽창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최근의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2월 25bp를 인하하였으나, 현재 7% 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시 통화 가치 하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기준금리 변화: 7.5%('07.11) → 10.25%('08.8) → 10.0%('09.2)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sup>e</sup> |
|-------------------|--------|--------|---------|---------|-------------------|
| 경 상 수 지           | -6,382 | -8,621 | -12,785 | -23,032 | -24,809           |
| 경 상 수 지 / G D P   | -8.4   | -8.7   | -10.4   | -13.6   | -12.4             |
| 상 품 수 지           | -6,665 | -9,618 | -14,836 | -24,566 | -26,752           |
| 수 출               | 23,485 | 27,730 | 32,336  | 40,555  | 49,413            |
| 수 입               | 30,150 | 37,348 | 47,172  | 65,121  | 76,165            |
| 외 환 보 유 액         | 14,616 | 19,872 | 28,066  | 37,194  | 36,868            |
| 총 외 채 잔 액         | 29,581 | 39,077 | 55,114  | 76,300  | 92,800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39.1   | 39.4   | 44.9    | 45.1    | 46.4              |
| D . S . R .       | 17.1   | 17.7   | 18.8    | 19.1    | 25.0              |

자료: IMF, EIU, World Bank



□ 2009년부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 개선 전망

- 루마니아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2008년에도 12.4%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금속제품 수출가격 상승 효과 및 수입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미미한 수준이나 개선되어 2009년에는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약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됨. 반면, 2009년부터는 유럽 노동시장 위축으로 인한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가 예상되어 경상수지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투입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 루마니아의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은 '09년 3월말 현재 327억 달러로 '08년말 대비 11.4% 감소하였음. 루마니아는 외화의 대부분을 유로화로 보유하고 있는바,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최근의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약세요인 외에도 통화(LEU)가치 방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유로당 달러화 환율: 1.47('07) → 1.42('08) → 1.32('09.3월말)

\* 외환보유액 : 374억달러('08.9월말) → 369억달러('08.12월말) → 327억달러('09.3월말)

- 한편,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8년말 추정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은 수입의 4.5개월분으로 전년도의 5.4개월 규모에서 소폭 감소하였음.

□ 민간부문 외화차입 증가로 인한 외채잔액 증가세 지속

- 2005년 자본거래 완전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141.4%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총 외채대비 민간부문 외채비중도 2005년 57.3%에서 2008년에는 73.8%로 증가하였음.

- 한편, 루마니아의 GDP 대비 공적채무 규모는 2007년 12%, 2008년 11.4% 수준으로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헝가리나 우크라이나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채상환부담 증가

-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의 투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며 루마니아의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었으며, DSR도 2007년말 19.1%에서 2008년말 현재 25.0%로 증가하는 등 루마니아의 외채상환능력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63.1%('06) → 83.5%('07) → 86.7%('08)

\* DSR : 18.8%('06) → 19.1%('07) → 25.0%('08)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정치성향이 대립적인 SDP-DLP가 연정 구성

- 2008년 12월 총선에서 비등한 득표율을 획득한 사회민주당(SDP, 좌파)과 민주자유당(DLP, 중도우파)이 연정 구성을 발표(12.14)하여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부가 탄생하였으나, 이미 주요 경제정책,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당간 긴 정치 대립의 역사 및 현재 양당의 의회 의결권이 비슷한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내부 갈등으로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SDP는 농촌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관철시킨 전례가 있고, 여러 소속 인사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례가 있음.

\* DLP는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주장해왔고 비교적 부유한 도시지역에 주요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친EU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

#####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2004년 5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아 내 압하지와 및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NATO 및 EU 차원의 대응에 동의함을 밝혔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 되는 코소보 독립선언('08.2) 미승인 국가임.

##### □ 러시아, 몰도바와 긴장관계 고조

- 러시아와는 NATO 가입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

아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및 바세스쿠 대통령의 러시아 에너지 안보정책 비판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잦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

□ 우크라이나와의 흑해지역 해양경계문제 관련 사법재판소 재판 승소

- 지난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총 12,000km<sup>2</sup>에 달하는 흑해지역 해양경계 지역중 79%에 달하는 9,700km<sup>2</sup>에 지역에 대해 루마니아의 관할권역으로 판결함으로써 Serpent Island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42년간 지속되던 흑해지역 해양경계 확장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임.

\* 분쟁지역은 천연가스(최대 1,000억 평방미터) 및 원유(최대 천2백만 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 사회 및 소요사태

□ 민족적 갈등은 미미,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

- 인구의 약 9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갈등 요인이 없음.

- 2008년 들어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부문의 3대 노조는 11월 초 단기 파업을 단행하였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 2007년까지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으나, 2008년 10월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해외차입 규모가 큰 동유럽 지역 국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S&P와 Fitch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S&P: BBB→BB+, Fitch: BBB→BB+)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난 4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도 루마니아의 등급을 한단계 (3→4) 하향 조정하였음.

\* S&P('08.10월)는 등급 하락 사유로 민간부문 해외 차입에 기반을 둔 내수 과열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총선 관련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정책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Fitch('08.11월)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 운영 방향이 잘못 설정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09.4월)에서는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하락, 외채 구조의 악화 등과 더불어 IMF구제금융에 따른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며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었음.

\* OECD : 5등급('03.1) → 4등급('04.1) → 3등급('07.1) → 4등급('09.4)

\* Moody's: Ba3('03.12) → Ba1('05.3) → Baa3('06.10)

\* S&P: BB('03.9) → BB+('04.9) → BBB-('05.9) → BB+('08.10)

\* Fitch : BB('03.12) → BBB-('04.11) → BBB('06.8) → BB+('08.11)

### 2. 외채상환실적

####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구

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08년 12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앞 단기외채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연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 단기: 총지원잔액 3.8억달러(연체잔액 0.3%, 1.3백만달러)
  - \* 중장기: 총지원잔액 23.3억달러(연체잔액 0.2%, 4.5백만달러)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유지 및 수출초과 기조 유지

- 대 루마니아 수출: 6.1억달러('06) → 8.5억달러('07) → 7.2억달러('08)
  - \* 주요 수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 대 루마니아 수입: 0.5억달러('06) → 0.8억달러('07) → 2억달러('08)
  - \* 주요 수입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 해외직접투자 현황('08.12월말): 2008년 중 총 11건, 1.3억 달러의 투자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총 누계로는 75건, 4억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임.

## V. 종합의견

- 루마니아는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시행, 신용증가에 따른 내수과열 및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누적이 지속되던 중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수출 및 신규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에 대응코자 지난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에 합의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기의 확산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년 4월 개최된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루마니아의 IMF 지원조건에 대한 이행여부가 우려됨에 따라 4등급으로 한단계 하향조정되는 등 주요평가 기관의 등급하향조정이 지속됨.
- 한편, 2008년 11월 총선이후 12월 좌우파 정당이 연합함으로써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상이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원만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문연구원 반형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mailto:hsbhan@koreaexim.go.kr)